

큰빛은혜교회 가정예배지

2025. 11. 5. WED



가정 예배 순서

예배준비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정해주세요
인도자 / 기도자 등의 순서를 정해주세요

사도 신경

다 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양

“나의 가는 길”

다 같이

각 가정마다 악기를 가지고 아래 찬양 혹은 원하시는 찬양을
선곡하여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코러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주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브릿지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대표 기도

가족 중 한 명이 기도합니다

기도자

성경 봉독

창세기 28장 1~9절

다 같이

1.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2. 일어나 밧단아람으로 가서 네 외조부 브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네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3.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4.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너와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5.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밋단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브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6.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밋단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7.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밋단아람으로 갔으며
8.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
는지라
9.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옷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말씀 나눔 약속의 길, 믿음의 선택 인 도 자

본문 말씀은 야곱과 에서, 두 형제가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서 각기 다른 선택을 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 선택은 단순한 결혼 상대를 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축복을 계승하느냐, 아니면 그 언약에서 멀어지느냐를 결정하는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야곱은 형을 속여 축복을 가로챈 후, 형의 분노를 피해 도망치는 신세가 됩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 도망길은 이삭의 축복과 당부를 따라 언약의 길을 걷는 순종의 길이었습니
다. 반면, 에서는 아버지의 뜻을 어기지 않는 척하면서도 결국 자신의 기준으로 행동하여 언약에서 더욱 멀어집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약속의 길, 믿음의 선택’이라는 주제로, 우리의 가정과 개인의 삶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그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할지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언약의 길을 향한 당부

이삭은 야곱을 불러 두 가지를 당부합니다. 첫째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는 것, 둘째는 밋단아람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1~2절 1 이삭이 야곱을 불러 축복하고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2 일어나 밋단아람으로 가서 네 외조부 브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네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것은 단순히 며느리의 출신 지역을 따지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족속은 우상을 숭배하고 부패한 문화를 가진 민족이었습니다. 이삭은 야곱이 그들과 결혼할 경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잃어버리고 언약의 축복이 끊어질 것을 염려했습니다. 믿음의 길은 거룩을 지키는 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야곱에게는 언약의 계승을 위해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는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이 최우선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떤 것을 보고, 듣고, 선택하며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언약이어야 합니다.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지 않고,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복을 그대로 축복해 줍니다.

본문 3~4절 3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4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너와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은 야곱의 도망길에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이 함께 할 것이라는 확신을 줍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가 비록 언약하고 부족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능력의 근거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둘째, 눈에 보이는 순종, 마음 속의 불순종

에서는 야곱이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외삼촌 집으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이삭이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고 당부한 것도 들었습니다.

본문 6~7절 6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는지라 7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아람으로 갔으며

에서 역시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태도는 야곱과는 달랐습니다. 즉, 그의 선택의 기준은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일에 맞추어져 있었지, 하나님의 '언약'에 맞추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본문 8~9절 8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9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에서가 택한 대안은 무엇입니까? 그는 이스마엘에게 가서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지만, 언약의 계통에서 벗어난 사람이었습니다.에서는 겉으로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듯했지만, 본질적으로는 언약과 무관한, 육적인 계통에서 배우자를 선택함으로써 언약의 길에서 더욱 멀어집니다.

에서의 선택은 우리가 경계해야 할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인간적인 기준으로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겉모양은 경건하지만, 그 동기와 내용은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참된 순종은 눈에 보이는 행위뿐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삶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는 마음의 순종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도 매일 수많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의 삶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길 위에 있는가?"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가는 가정과 개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오늘 우리가 내리는 결정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기준으로 하고 있나요?
2. 예서처럼 '보이는 순종'은 하지만 실제로는 내 뜻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3. 이삭이 야곱에게 전한 언약의 축복을 생각할 때, 나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시길 원하실지 나누어보세요.

중보기도

담임 목사님을 위해

다 같이

1. 이 시대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영적 지도자가 되도록
2. 말씀 준비하실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가 있도록
3.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도록
4. 많은 사역 속에서도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고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5. 목사님 가정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마무리 기도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선택이 곧 믿음의 길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순종의 길을 걷게 하시고,
 예서처럼 겉모습의 순종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가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언약의 길 위에서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다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